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메드포드 웰링턴 스테이션 트랙에서 찰리베이커 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렌지라인 운행 중단을 밝히고 있다.(사진=주정부)

MBTA 오렌지라인 30일간 운행 중단, 불편과 혼란 불가피

철로 보수가 주요 목적, 30일간 24시간 작업 선택
노선따라 셔틀버스 운행, 찰리카드 패스로 커뮤니티 라인 이용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BTA가 이번달 말부터 30일간동안 오렌지 라인을 잠정 폐쇄한다. 찰리베이커 주지사는 3일 오렌지 라인을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스템의 중대 보수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메드포드에 위치한 웰링턴 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로 보수와 정비작업

을 위해 30일간 운영을 중단한다” 고 밝혔다

교통공사의 GM인 스티프 포프탁은 “MBTA의 운행중단은 전례없는 결정”이라며 “포괄적인 노선의 개선을 위해 전체 운행중단을 시행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과감한 결정이야말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혜택을 승객들에 ▶▶6면으로 계속

한인회 노래자랑대회 "노래 좋아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

K-pop에 주눅들지 말라, 옛노래 등 한국 가요 전체 장르면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광복절을 기념해 매사추세츠 한인회 노래자랑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회가 1차 예선을 치르고 방향을 좀더 개방적으로 수정했다. 지난 31일 일요일 우편 한인회관에서 치러진 1차 예선에 참가자가 전부 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인회 정대훈 사무총장은 “처음에 K-Pop으로 광고를 했더니 젊은 최신 곡만을 생각하시고 참여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가요 전체 장르와 옛 가요부터 최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라며 노래를 좋아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도전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오는 8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인회관에서 2차 예선을 치른다. 그간 집에서 노래반주기로 갈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최고의 전문가에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조은경 NH한인회 고문, 편집부 = 지난 7월 29일 뉴햄프셔주 보스카웬(Boscawen)에 위치한 주립 국군묘지에는 주 전역에서 모인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친지들을 포함한 약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한국전 참전 추모비 앞에 모였다.

뉴햄프셔 한인회 (회장 박선우)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인파였다. 행사 시작 시간은 3시였지만, 한두 시간 전부터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도착하여 한국전 참전 추모비와 그 주변을 둘러 보고 서로 담소를 나눴다.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유기준 총영사와 뉴햄프셔 주 방위군 부사령관인 워렌 페리(Warren Perry) 장군(Deputy Adjutant General), 주 방위군 참모장인 에릭 페센덴(Erik Fessenden)대령이 참석하였다.

뉴햄프셔주의 서누누 주지사(Chris T. Sununu, Governor), 진 셰힌(Jeanne Shaheen) 미연방 상원의원, 마가렛 핫산(Margaret Hassan)

미연방 상원의원, 애니 쿠스터(Annie Kuster) 미연방 하원의원, 및 크리스 파파스(Chris Papas) 미연방 하원의원은 각각 보좌관을 보내어 행사에 참여케 했다.

기념식은 미군 기수들의 양국국기 입장으로 시작되었다. 뉴햄프셔한인회 박선우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애니 고만(Annie Gorman)의 선창으로 참가자들은 양국 국기를 제창하였다.

국민의례 후에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유기준 총영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서누누 주지사(Governor, Chris T. Sununu)는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치하하고, 한인회가 창립된 이래로 지난 이십여년 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은행사를 주최해 온 뉴햄프셔 한인회의 박선우 회장 및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였다.

워렌 페리 뉴햄프셔 주 방위군 부사령관, 에릭 페센덴 주 방위군 참모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다.

박선우 회장은 각 연방 상하원의원실에서 나온 보좌관을 한명 한명

소개하였고, 보좌관들은 각 상하원의원들의 메시지를 대독하였다. 이어서 콘래드 페롤트(Conrad Perreault) 뉴햄프셔주 한국전 참전용사회 직전회장이 참전용사회를 대표하여 단상에 올라 그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처럼 의미있는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주최해 온 뉴햄프셔 한인회와 한인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한인회에서 준비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식사장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올 행사는 요양시설에 있는 여러 참전용사들이 휠체어에 타고 보호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뉴햄프셔 한인회 관계자는 “한국전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80대 후반 90대 초반이 되어서 점점 기력이 쇠해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서까지 본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인 참전용사들의 모습에서 이 행사가 이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사진=뉴햄프셔 한인회 제공



행사에 참석한 한미정부대표단(앞줄가운데왼쪽은 박선우 회장, 오른쪽은 유기준 총영사)



유기준 총영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Erik Fessenden 주방위군 참모장이 참전용사와 함께 식사장소로 향하고 있다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bi (beef short ribs)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재관위, 장우석 재관위원 영구 해임

재적위원 4분의 3의결로 영구해임안 가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KACNE TRUST, 이하 재관위)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장우석 재관위원을 위원직에서 영구해임했다.

재관위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인회관에서 열린 재관위원들은 회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참석위원들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표로 영구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호(위원장), 남궁연(전-위원장), 안병학(재무위원), 김성군(서기), 박진영, 한순용, 서영애, 박찬모, 장우석 위원이 참여했으며 김경원 위원은 불참했다. 표결에는 장우석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여했다.

재관위는 6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장우석 해임안건을 두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 장우석 위원이 한국 출장이었으며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7월로 해임안건을 연기했다.

이에 앞서 재관위의 수혜자인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이사회에서 만



2019년 당시 한인회장에 당선후 한인회관 앞에서 자세를 취한 장우석 전 한인회장.(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장 전회장은 박찬모 전 사무총장과 함께 한인회관 재관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장일치로 장 위원의 해임권고 청원을 재관위에 요청기로 의결해 이를 재관위에 전달했다.

재관위는 충실한 임무수행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위원해임을 재적의원 3/4의 가결로 집행할 수 있는 재관위 정관 5항에 근거로 해임안을 처리했다.

한편, 회의록에 따르면 장우석 위원을 지지하는 박찬모 재관 위원은 “김성군, 안병학 2명의 재관위원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지 않았다” 며 투표 자격 여부를 물었다. 정관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경원 재관위원은 이번 회의에 앞서 이메일을 보내 2명의 위원의 연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박찬모 위원은 지적했다.

이영호 위원장은 “연임건은 이미, 이메일 서신으로 연임이 되었음을 알린바 있다. 매사추세츠한인회(KASOM)에서 적극적으로 두 위원의 연임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인 본인도 적극 연임을 독려한바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박진영, 한순용 등의 의원 등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투표가 이뤄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다큐 영화, <프리 철수리>, 8월 17일 수요일 하루만 개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1970년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풀려난 한인 이민자 이철수(Chol Soo Lee)를 조명하는 다큐 영화가 8월 17일 수요일 저녁 미전역 영화관에서 단 하루만 개봉한다.

이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영화는 놀랄만한 미국내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공동의 대의명분을 위해 똘똘 뭉치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강한 힘을 다루고 있다.

이번 전국적인 개봉 이벤트는 이철수씨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개된다. 영화 개봉관은 AMC보스톤커먼19, 리갈 펜

웨이, 랜드마크 캔탈스퀘어, 쇼케이스우번 등 4곳이다.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20대의 이철수씨는 인종차별을 당하며 차이나타운 폭력조직원의 살해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수년간 생존하다 그의 케이스에 관심을 가진 K.W. Lee씨의 노력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사회적 행동의 불씨를 일으키게 된다.

50여년이 지난 후 언론인 줄리 하씨와 유진 이씨가 감독을 맡아 다큐멘타리를 제작했으며 선댄스 영화제의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이화여대 동창회 여름 피크닉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대 동창회(회장 김지영)는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브루클라인 소재 앤더슨 파크(Larz Anderson Park) 바비큐 점심 여름 피크닉을 개최한다.

동창회는 “짙은 신록의 계절에 아름다운 호수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동창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자 바비큐점심과 즐거운 활동을 준비했다” 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는 김지영 회장 (Jiyoungjin@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매스주 총기판매 지난 2년간 기록적인 수준

2020년에서 2021년간 27만6천자루의 총기 판매
대법원의 판결로 많은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여성들과 유색인종들의 총기 구매도 전체의 절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진보적인 주로 총기규제에 적극적인 매사추세츠주에서 지난 2년간 총기 판매가 기록적인 수준에도 달했다. 구매 총기는 권총이 대부분이었다.

비영리 라디오 WBUR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매사추세츠 총기점들은 총 27만6천자루의 총기를 판매했다. 이 중 권총은 64%였으며 장총은 2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 총기판매는 2019년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10년 전에 비해 2배에 달한다.

하이애니스의 케이프건워크스의 토비 리어리 사장은 2020년과 2021년이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총기 판매 점과 사격장을 소유한 리어리 사장은 “매출은 세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기판매의 증가는 매사추세츠에만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인들은 수많은 총기를

사서 보유하게 됐다.

리어리 사장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때 총기를 구매한 사람의 대부분은 처음으로 총기를 구매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총기를 방어 목적으로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냥 발걸음이 총기상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고객들은 결코 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언지 모르는 두려움이 총기를 보유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달랐다.

톤톤에 거주하는 재정설계사 프랭크 개리도(63)씨는 늘 총기 소유를 기피해 왔지만 지난 몇해동안 경찰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가 벌어지면 결국 총을 소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여름 처음 총을 보유했으며 이후 이에 폭 빠져 지금은 6정이나 소유하게 됐다. 일부는 자신의 보호 다른 총은 연습사격을 위해 구입했다.

개리도씨는 “월마트, 영화관 심지어 교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총을 휴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도 총기규제를 완화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회는 규제법을 강화해 총기 소유 신청시 경찰과 개인 인터뷰를 하도록 했고 폭력방지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총기면허를 불허하도록 했다.

리어리 사장은 자신의 총기판매점의 자기방어 클래스에서 권총 사용법과 가택 침입자 대처법, 거리에서 갑작스런 기습공격 등에 대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클래스에 참석한 사람들은 총을 휴대해서 클래스에 참여하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해서 다니고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들어 여성과 유색인종들의 총기구매도 늘었다.

총기 소유자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노스이스턴과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총기구매자의 5명 중 1명은 첫 구입자이다. 거의 절반



이 여성이며 또한 거의 절반이 유색인종이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매사추세츠에서 총기보유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비영리단체 랜드콧(Rand Corp)은 2016년 매사추세츠 가정의 9%만 총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들어 총기 구매의 증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하버드 연구원 아즈릴 씨는 많은 사람들은 총기를 소유한 것으로 인

해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기소유의 위험은 자살이나 살인 그리고 의도치 않는 부상 등으로 혜택보다는 위험이 압도적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기소유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보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hsb@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영화 <비상선언> 12일 AMC보스톤커먼서 개봉

항공기 테러로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 이야기 송강호·이병헌·전도연 배우들의 생애 첫 호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영화 '한산' 에 이어 올 하반기 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비상선언'이 12일 보스톤 다운타운의 에이엠시보스톤커먼19(AMC Boston Common 19)에서 개봉한다.

영화 '비상선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앞에선 사람들의 각각의 감정과 드라마를 담고 있다. 영화는 의문의 남성이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원인불명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다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탑승객을 시작으로, 비행기 내부의 모든 탑승객들은 일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미 이륙한 비행기라는, 어디로도 탈출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혼돈의 상황은 불가피한 재난을 마주한 인간의 면면을 조명한다.

비행 공포증을 앓고 있는 재혁(이

병헌)은 어린 딸을 지켜야만 한다. 절망과 혼란의 재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감정 역시 그의 내면을 가로지른다. 비행기 내 상황은 육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믿지 못할 뉴스가 된다.

밀린 수사 업무로 인해 아내와 계획한 하와이 여행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된 베테랑 형사팀장 인호(송강호)는 상공의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형사로서 비행기 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감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주목할 점은 영화 '비상선언' 캐스팅이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등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해 개성과 매력, 연기력으로 스크린을 풍성히 채운다. 무엇보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세 배우가 다 함께 첫 연기 호흡을 맞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송강호는 이병헌, 전도연에 대해 "존경하는 배우들이 동시에 오랫동안 함께 해 온 허물없는 사이의 동료들과 작업해 행복했다"라며 애정과 존경을 표했다. 이병헌 역시 송강호와 전도연에 대해 "두 배우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일이었다"라며 신뢰감을 전했다.

영화를 연출한 한재림 감독은 "위낙 뛰어난 연기자들이었기에, 움직이는 세트에 맞게 자연스러운 감정과 연기들이 나왔다. 세트가 40%의 역할을 했다면, 승객 캐릭터들의 연기가 나머지 60%를 꼭 채우며 관객들을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칸 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비상선언'은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마자 환호와 함께 약 10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다운 호평을 이끌어냈다.

'비상선언'은 12일 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렉싱턴 Wallis Dental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분 한분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클리닝, 충치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브리지, 틀니, 임플란트

거의 모든 각종 보험 취급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치과의사 김민정
Boston University Dental School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현 Boston University Dental School Faculty 겸임
20여년 이상 메사추세츠에서 치과의사 경력

www.wallisdental.com

TEL : 781.862.6565 (렉싱턴 센터에 위치)
1 Wallis Court Unit #4, Lexington, MA 02421



MBTA 오렌지라인 30일간 운행 중단, 불편과 혼란 불가피

▶▶1면에 이어서

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이었다고 강조했다.

야간에 몇시간 동안 선로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24시간 30일동안 전격적으로 선로를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포프탁 매니저는 "향후 30일 동안 오렌지라인 전체에 걸쳐 일부 지역에 있는 선로접합부분을 교체해 느닷없이 발생하는 고장 및 연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지하철역 수곳에 있는 감속지역 및 속도제한 지역의 선로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19일 운행이 재개될 때 차량량 대부분 신규 차량으로 교체되어서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프탁 매니저는 운행 중단 시점 동안 승객들은 커뮤니티레일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승객들은 커뮤니티레일 Zone 1A, Zone 1, and Zone 2 요금은 찰리카드 또는 MBTA패스를 보여주면 탈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38년된 3500피트에 달하는 오렌지 라인 접합부분을 교체하게 된다. 속도제한지역 및 감속지역의 선로를 교체해 이를 정상속도화해 운행시간을 훨씬 단축할 계획이다. 이

외 선로교체, 콘크리트 교체, 물든과 오크그로브역 사이 신호 업그레이드 등을 시행한다.

그린라인의 경우 E라인은 8월 6일부터 21일까지 보호시스템설치작업을 실시하며, D라인은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호시스템설치 및 선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한다.

오렌지 라인과의 그린라인의 공사로 인한 운행중단으로 임시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T 이사회는 버스회사인 양키라인과 3천7백만달러의 계약을 승인했다. 이 회사는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오렌지 라인을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해 승객들을 운송한다.

T는 러시아워에는 총 160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등 총 20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T측은 각 지자체와 논의해 구체적인 버스 운행선로를 결정하게 된다.

이 셔틀버스는 무료이며 앞서 밝혔듯이 커뮤니티 레일을 찰리카드와 MBTA패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렌지 라인은 멜로스에서 자메이카플레인까지 운행되며 매주 수십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향후 오렌지 라인의 운행 중단은 극도의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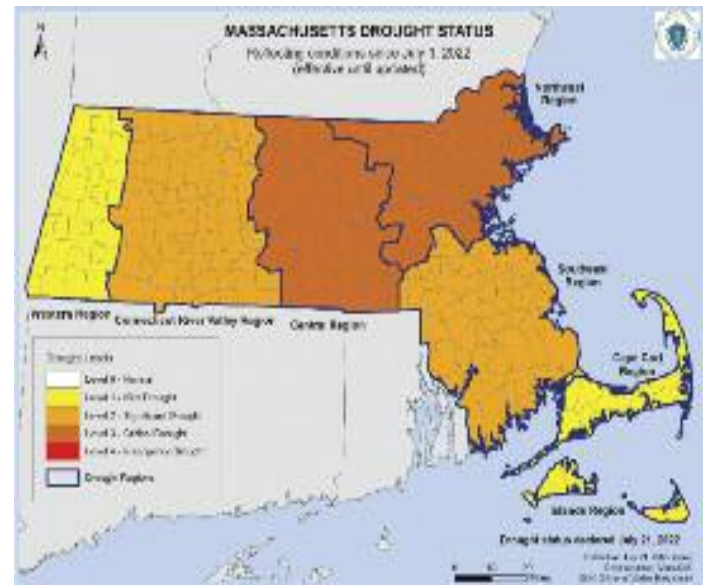
오렌지 라인의 주당 이용수는 10만4천명이다. 블루라인은 4만1천명, 그린라인은 9만4천명, 레드라인은 12만5천명이다.

이번 운행 중단 보수작업은 연방정부가 수개월동안 매사추세츠의 T 시스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보수를 권장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MBTA는 최근 일련의 사고가 중첩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2021년 그린라인 충돌사고를 기점으로 백베이 전철역에서 에스칼레이터가 거꾸로 돌면서 9명이 부상을 당했다. 커뮤니티레일은 월빙턴의 신호 작동 이상으로 한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다. 그린라인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충돌해 또다른 4명을 부상케 했다. 레드라인에서는 한 청년을 문에 달고 달려 사망케 했다.

급기야 연방교통행정부(FTA)에서는 안전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달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선 6월 FTA에서는 충분한 운행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는 운행을 20%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hsb@bostonkorea.com



지난해 절반 강우량, 올 여름 가뭄 기록적

사상 6번째 가뭄, 4월부터 7월까지 사상 두번째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2022년 올 여름은 연 평균에 비해 더 덥고 적은 강우량으로 역대 10위 안에 드는 기록적인 가뭄권에 진입했다.

4월부터 7월까지만 봤을 때 2022년은 1950년도에 비해 두번째로 강우량이 적은 해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합산하는 경우 강우는 16.46으로 역대 6번째에 위치한다. 가장 가뭄었던 해는 1965년으로 올해보다 평균 2도 가량 낮았기에 가뭄의 충격이 조금은 덜했다.

7월 한달동안만 놓고 볼 때도 강우량은 0.62인치로 1965년의 0.55인치에 비해 두번째로 낮은 강수량이었다.

매사추세츠에너지환경부(EEA)는 7월 22일부로 매사추세츠 동북부와 중서부의 가뭄 단계

를 1단계 끌어 올려 3단계인 극심한 가뭄상태를 선포했다. 3단계에서는 핵심적이지 않는 물 사용을 금하고 있다.

8월 첫째주는 또 한차례 난 최고기온이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상당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MWRA)의 수원지는 경우 다행히 가뭄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민영 샘 등은 현재 가뭄을 겪고 있다. 찰스강도 일부 지역은 바닥 드러날 정도다.

그러나 이 가뭄도 어느 순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10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도 어느 순간 시원바람으로 변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인회 노래자랑대회 "노래 좋아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

▶▶1면에 이어서

고뒀은 실력을 가감없이 한인회 예선에서 보인다면 12명의 예선 통과가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특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노래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 모두 가능하므로 깔린 명석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끼를 보여줄 수 있다. 팬

데믹으로 인해 관중들 앞에 설 기회가 많지 않게 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큰 경험이 될 수 있다.

상품도 푸짐하다. 1등은 대형 김치냉장고, 2등은 65인치 TV, 3등은 쿠키압력밥솥이다. 인기상과 참가상도 주어진다.

예선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는 서영애 회장(978-807-1622), 정대훈 사무총장(978-461-2424), 이메일은 masskorean2021@gmail.com이다.

예선 심사: 8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한인회관(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신청 연락처: masskorean2021@gmail.com,

978-807-1622, 978-461-2424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매스주 \$250 리베이트, 감세 물건너 가나?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250체크, 감세 법안 무산 1986년 법의 발현에 의회 감세법안 검토로 급선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였다. MA 세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곧 법안으로 서명될 것으로 여겼던 감세 법안이 막판에 었어졌다.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는 매스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획된 \$250 리베이트와 주 세금감면이 포함된 경제개발법안이 막판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의회 지도부는 임시 회기를 잡아 이를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의회가 협상을 접은 이유는 1980년대에 제정된 법안에 따라 추가로 30억달러 규모의 세금 크레딧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했기 때문이다.

촉발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로부터 시작됐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주 주정부의 유례없는 세수잉여를 기록했으며 이는 40년된 세금한도법을 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86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주정부의 세수 잉여는 주내 임금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며 잉여세수는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8월 1일 월요일 아침 10시 13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의회 지도부는 스포츠도박합법화, 정신건강케어 접근확대, 주 총기법 재조정 등의 일련의 법안을 합의해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그러나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하며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감세와 리베이트가 포함된 대형 경제개발 법안은 제외했다.

의회는 이번 법안을 시행하는 경우 향후 주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며 주 정부가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길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두가지 세금 감면을 충분하게 감당할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1986년 법안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은 약 29억달러에 달한다.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이 법안을 변경 또는 잠시 중단하는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상원은 리베이트와 세금감면 일부는 통과시키자고 했으나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끝까지 거부했다.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올 가을에 다시 임시회기를 통해 \$250 리베이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50 리베이트와 EITC 확대 및 자녀세금크레딧 확대 등은 올 가을에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의는 임시회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회기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의회는 7월 마지막날을 데드라인으로 스스로 정하고 막판까지 협상하는 것은 늘 해왔던 일이다. 이로 인해 막판의 극적인 타격을 이뤄내기도 하고 주요 법안이 사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세대에 있을까 말까 하는 감세법안을 막판까지 두고 협상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공동회기는 7월 31일 자정으로 마감해야 했으나 의회는 이를 임시 중지시키고 월요일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매스 연방검찰청, 혐오범죄 핫라인 개설

혐오사건 전용 신고 핫라인 833-634-866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 혐오 관련 사건이나 범죄를 신고하는 전용 핫라인이 개설됐다.

레이첼 톨린스 매사추세츠 미 연방검찰청장은 3일 혐오범죄와 혐오와 관련된 우려를 일으키는 단체, 그리고 혐오관련 견해나 행동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지금혐오근절(END Hate Now)' 1-83-END-H8-NOW (1-833-634-8669)을 만들었다.

전화 신고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광동어로 신고할 수 있다.

톨린스 연방 검찰청장은 "참담한 대량살상 총기난사와 인종적인 동기로 상상할 수 없는 극단화된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극단주의 단체가 거리에서 시위하는 상황이 벌어

졌다" 며 백인우월주의 그룹의 최근 시위를 지적했다.

또한 하이드파크 소재의 노인아파트 PRYDE에서 일어난 사건, LGBTQ 커뮤니티에 불태워 죽이겠다는 협박 등이 같은 혐오범죄로 언급했다. 그러나 톨린스 연방검찰청장 아시아인혐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혐오범죄는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깔, 종교, 출신국가, 성적 성향, 성적정체성, 장애 등에 근거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다만 연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것에 대한 편향된 신념과 제 1 수정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적 사상적인 믿음은 허용되는 단지 이것에만 근거해서 범죄로 조사할 수는 없다.

매스 연방검찰청은 혐오범죄를 수사할 인권 및 인신매매 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팀장에 엘리자베스 라일리 검사를 임명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7월 28일 527억 달러 주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나 \$250 리베이트 체크 및 감세 법안은 주지사 책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종아리 알쏭 빼는 최고의 스트레칭

“다이어트해도 이상하게 종아리, 허벅지는 잘 안빠져요”

개인레슨은 그야말로 개개인의 체형과 need에 맞는 맞춤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요, 최근 다양한 요청 사항중 하체비만 그중에서도 종아리가 두꺼워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 알을 확실하게 빼고 다리를 매끈하고 날씬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 동작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꾸준히 주 3-4회 이상, 한달만 해보셔도 종아리가 몰라보게 얇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한국어 요가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 중 ‘종아리 레전드’편을 따라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1. Half Split (하프 스플릿)/ 변형자세 - 허벅지, 종아리, 발목 스트레칭

1단계 테이블 자세에서 왼발을 앞으로 가져가 로우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왼발을 두 손 사이에 위치한 후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세요

3단계 왼다리를 길게 펴서 다리 뒷면의 근육을 늘려줍니다.

TIP! 무릎이 잘 안펴진다면 손 밑에 블록을 두거나 벽쪽으로 가 한 손을 벽에 대고 허리를 세운 후 다시 다리를 펴보세요. 최대한 허리를 펴고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4단계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발끝을 잡아당겨 발가락을 끌어당겨서 flex해줍니다.

5단계 가슴을 조금더 허벅지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며 깊게 호흡합니다.



2. Half Hero Pose (하프 히로 포즈)/ 변형자세 - 종아리 안과 밖 스트레칭

1단계 첫번째 자세가 끝나면 그대로 오른발

을 엉덩이 바깥에 둔 상태에서 앉아줍니다.

2단계 두 좌골뼈의 균형을 잘 맞추고 왼다리를 편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3단계 할 수 있다면 오른 손으로 왼 발바깥쪽을 잡고 살짝 잡아 당기며 왼쪽 사선으로 가



슴을 보내 트위스트 합니다.

4단계 발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허벅지와 종아리 바깥쪽에 더 자극을 느껴봅니다.

5단계 이번엔 발을 바깥쪽으로 내려(팔자모

양의 발) 다리 안쪽의 자극에 집중합니다.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2.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4.첫 수업 체형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diverse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재외동포재단,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A) 획득

2021년 우수공시 기관 선정, 20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등급에 이은 성과
경영실적평가 경영관리부문은 2년 연속 탁월(S) 등급 획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021년도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달성하였다.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관리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외교부의 산하기관경

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혁신성과 등 가점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경영관리부문에서는 2년 연속 '탁월(S)' 등급을 획득하였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략을 재정립하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국초청사업 개최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다변화하여 주요사업부문 역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2021년 우수공시 기관 선정, 20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등급에 이어 '2021년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은 전 임직원의 노력이 빛어낸 자랑스러운 성과" 라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인 2분기 카드빚 23년만에 최대폭 증가...인플레이 영향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미국 가계부채는 16조달러 돌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여파로 2분기 미국인들의 카드빚이 2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뉴욕타임스(NYT), 미 CNN 비즈니스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미국의 카드 부채는 2분기에 8천900억달러(약 1천161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천억달러) 늘었다. 이는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었다. 카드 부채는 전분기 대비로는 5.5%(460억달러) 늘었다.

뉴욕연은은 "차입금 증가의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카드빚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한 소비자들의 고군분투를 반영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월에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고,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로 40여년 만의 최

고치를 보인 바 있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국인들도 많았다. 신용카드 신규계정은 2분기에 2억3천300만개 늘어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뉴욕연은은 다만 신용카드 연체율이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가계부채는 2분기 16조2천억달러(약 2경1천133조원)로, 전분기보다 2%(3천120억달러)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천70억달러(약 270조원) 늘었고, 자동차 할부대출(오토론)도 330억달러(약 43조원) 증가했다. 뉴욕연은은 "가계 대차대조표는 전반적으로 견실한 상황"이라면서도 "금리가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 이전 수준으로 오름에 따라 비우량 대출자나 저소득층 대출자들 사이에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미, 감염자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 격리 완화...거리두기도 없애

CNN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학교 정기검사도 권고 안 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르면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 계획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CDC가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격리 권장이 완화되고, 현재의 6피트(182cm) 사회적 거리는 강조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했던 검사도 완화된다.

일부 완화 사항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사항은 교육계와 보건계에 전달돼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CDC는 "우리는 우리의 지침을 계속 평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이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CDC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격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5일간 집에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격리 권고는 안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

나19 증세가 있으면 여전히 격리해야 한다.

또 보호 조치로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이상 두도록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더 감염 우려가 있는지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실에 나오기 위해 반도록 했던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 권고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다.

이는 CDC가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바이러스에 노출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미접종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하면서 권고했던 사항이다.

이는 학교에 많은 인력과 돈이 필요하면서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CDC의 이같은 지침 변화는 사실상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서 변화와 함께 높은 면역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 다시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DC의 권고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많은 시와 주, 학교에서는 검토는 하되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



워싱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걷는 사람들

미국 6월 무역적자 6.2% ↓ ...역대 최대 수출에 석달 연속 감소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에너지 제품 수출 급증에 힘입어 상당폭 개선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79억달러(약 104조2천억원)로 전월보다 6.2% 감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3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0억달러도 하회했다.

수출이 1.7% 증가한 2천608억달러(약 341조3천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무역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무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16억달러, 식음료 제품 수출은 9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여러 나라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품으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을 늘린 영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수입도 3천404억달러(약 445조6천

억원)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5월보다 0.3% 감소했다. 이 중 자동차와 차 부품 수입이 27억달러 급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47억달러 증가한 369억달러(약 48조3천억원)로 집계됐다.

큰 폭의 무역적자 감소는 미국내 총생산(GDP)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던 무역 적자는 2분기 들어 크게 개선돼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캔자스 지역 주민투표 캠페인

캔자스서 낙태 이슈 위력 확인...중간선거 고전하는 美 민주당

여성·진보 유권자 결집...민주, 낙태이슈로 선거운동 전선 구축
최우선적 관심사는 여전히 경제 문제...낙태 이슈 파급력에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미국 캔자스주(州)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낙태권 이슈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로 바이든 정부가 고전하면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진보 성향 및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판세가 민

주당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기대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보수 성향으로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주에서 지난 2일 진행된 낙태 관련 찬반 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안전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크게 고무된 상태다.

4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캔자스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에서 59%(53만4천134명)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41%(37만4천611

명)에 그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됐다.

민주·공화당 경선과 함께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

민주당 경선에는 등록 유권자 가운데 56%가, 공화당 경선에는 등록 유권자 가운데 53%가 각각 참여했다. 통상 공화당 경선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다만 절대적인 유권자 숫자는 공화당 경선 참여자가 많았다.

캔자스시티 교외의 존슨 카운티의 경우에는 2만2천명 이상이 투표했는데 이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각각 대체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세한 도시와 시골 지역과 달리 교외 지역은 표심이 유동적인 곳이라는 점에서 교외 지역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낙태 이슈로 유권자들이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NYT가 캔자스 투표 결과와 인구 분포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캔자스주와 똑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를 할 경우 50개 가운데 7개 주만 반대 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장 내용을 삭제하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 와이오밍 등 7개 주에서만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없어진 낙태권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낙태를 위해 다른 주를 이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올린 트위터 글에서 "의회는 반드시 '로 대 웨이드'에 따른 보호를 입법해

야 한다"면서 "만약 의회가 실패할 경우 이 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 존 페터먼 상원의원 후보는 경쟁자인 공화당 메흐멧 오즈 후보를 낙태권 문제를 연결고리로 공격하는 등 주지사 및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전선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페터먼 후보는 최근 "여기에서도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캔자스에서 하려고 한 것과 똑같은 일을 공화당이 하려고 한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보호할 것이고 오즈 후보는 그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다만 갤럽의 1일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 문제를 뽑은 국민이 가장 많았다.

인플레이션(17%), 정부 및 리더십 문제(17%), 경제 일반(12%) 등의 순으로 경제·인플레이션 문제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우선적 관심사였다. 낙태 문제(8%), 낙태권 논란을 초래한 사법 시스템 문제(6%)를 꼽은 응답자는 경제 문제보다는 적었다.

이에 따라 실제 낙태권 이슈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oleco@yna.co.kr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THE PRO REALTY GROUP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與, 비대위원장 내주초 결정... '당내 중진' 좁혔으나 낙점은 아직

주호영·정우택 등 관리형 비대위' 대세 속 '외부수혈' 주장도 내홍·지지율 수습 과제... '차기 전대·尹대통령 의중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 임무이지만, 동시에 대선 이후 계속되는 내홍을 수습하고 동반 하락세인 대통령·여당 지지율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대위 체제의 성격·기간을 정하는 문제도 유독 까다로운 상황이다. 비대위 종료 시점과 연동되는 전대 개최 시기에 따라 차기 당대표 임기는 물론이고 총선 공천권 부여 여부 등 권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권 내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 선정에 당내 여론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비록 당의 '임시 기관'이지만 인선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비대위원장은 내주 초인 8월 9일 전후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에 대한 당헌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에 이어, 이준석 대표의 '사고' 사태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한 전국위가 소집된 날이다.

이번 전국위 일정에 맞춰 비대위

원장 후보자가 내정된다면 당일엔 비대위원장 지명 안건까지 동시처리함으로써 '질서 있는' 비대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행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직후부터 당내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며 차기 비대위원장 물색에 나섰다. 특히 3선 이상 중진부터는 권 대행이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직접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원내는 현역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오전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선수를 막론하고 당내 분란이 없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다선인 5선 가운데는 주호영 정우택 의원이 우선 거론되며, 3선이지만 김태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주호영, 정우택 의원의 경우 각각 21대 국회 전반기와 20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상대적으로 과색이 열리는 평가를 받는다.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앞서 거론되는 이유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초재선 그룹 사이 주 의원의 '안정성'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 의원은 본인의 하마평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면 '당이 어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의) 중압감도 작용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외부에서 온 분이면 당내 기류라든지 또 여러 상황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내부차출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윤핵관 쪽이나 이준석 쪽에서 비대위의 인물이 나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비대위를 구성해 공정·정당한 조기 전대가 개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경우 현직 부의장인데다가 권 대행과 마찬가지로 친윤계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아닌 차기 당권을 고려 중이라고도 전해진다.

반면에 외부 인사를 데려와 당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지속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조해진 의원 등에서 주로 제기되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고 윤 대통령에도 가까이 조력해온 김병준 전 위원장부터 박주선 전 의원 등 호남·진보 진영 인사까지 다양한 인물이 거론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오른쪽)과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UG. 5th - AUG. 11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THANK YOU VERY MATCHA BINGSOO

Calling all Matcha lovers, if you thought Korean Shaved Ice couldn't taste any better, wait until you try this absolutely heavenly Matcha Bingsoo! Not too sweet and perfectly nutty, you'll be saying thank you very matcha as you devour this iconic Korean dessert.

H 마트와 함께 만든 시원한 녹차 빙수로 달콤 씹사름한 맛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SAMHAK Minced Garlic 삼학 다진마늘 1 LB/JAR \$6.99</p>	<p>White Garlic 마늘 LB \$2.99</p>	<p>Pickled Cucumber & Eggplant 오이 & 가지 절임 15.98 OZ/PKG \$3.99</p>	<p>Seafood Mushroom 씨푸드버섯 5.3 OZ/PKG \$2.49</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LB \$1.9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99</p>	<p>Hami Melon 하미 멜론 LB \$1.99</p>	<p>Jumbo Pressed Tofu 점보 압착 두부 10.5 OZ/PKG \$2.99</p>	<p>Kent Mango 켄트 망고 BOX \$12.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콩두부 SOFT/FIRM/SILKEN 14-16 OZ/PKG \$1.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p>	<p>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p>
<p>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7.99</p>	<p>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99</p>
<p>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LB \$6.99</p>	<p>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Teriyaki Grilled Sea Eel 테리야끼 바다장어구이 14.1 OZ/PKG \$16.99</p>	<p>Frozen Cleaned Salted Yellow Croaker 손질된 자반 참조기 LB \$8.99</p>
<p>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FOR \$29.99</p>	<p>DAEWANG Katsubushi 대왕 하나가스오 1.76 OZ \$6.99</p>
<p>Frozen Busan Kamaboko Fishcake Soup 부산 가마보꼬 어묵탕 1.1 LB/PKG \$4.99</p>	<p>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39.99 15 LB</p>	<p>USDA ORGANIC H MART SMART CARD ONLY CHUNG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14.99 6.6 LB</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꽁치 통조림 14.1 OZ 2\$5 FOR</p>	<p>H MART SMART CARD ONLY 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7.99 24.33 OZ (30 EA/PKG)</p>

<p>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9.99</p>	<p>NONGSHIM Neoguri Udon Type Noodles 농심 너구리 4.2 OZ X 16 PKG/BOX \$16.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1.99</p>	<p>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16.9 FL OZ \$3.99</p>	<p>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그 집 떡갈비 ORIGINAL/SPICY 16 OZ \$8.99</p>
<p>SONGJOO Spicy Cold Noodle 송주 냉면 3.17 LB \$9.99</p>	<p>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p>	<p>YOODONG Silkworm Pupa in Sauce 유동 툇배기 번데기탕 SOYBEAN PASTE/SPICY 9.87 OZ 2\$5 FOR</p>	<p>HAIO Canned Whelk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5.99</p>	<p>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향그리 강냉이 5.99 OZ \$2.99</p>
<p>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3.99 1.37 OZ X 12 EA/PKG</p>	<p>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5.99 6.8 FL OZ X 6 EA/PKG</p>	<p>KOTO Electric Multi Cooking Pot 코토 다용도 전기 냄비 2.6 L (20 cm) -\$39.99 \$27.99 EA</p>	<p>CIMELAX Door Fit/Mini Grain Container (Color Mix) 씨밀렉스 도어핏/미니 잡곡통 -\$7.99 2050 ML -\$4.99 1300 ML \$5.49 \$3.49 EA</p>	<p>CHEFWAY Felice Cookware Set 세프웨이 펠리스 탈부착 냄비 세트 MINT/LEMON -\$104.99 \$71.99 SET</p>

H MART QUINCY, MA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TEL.857-392-5029

GRAND OPENING

AUGUST 4TH, 2022 AT 10:00 AM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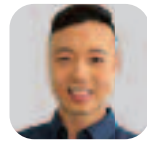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and NY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UNBEATABLE PRICE

달콤한 망고와 함께하는 여름!

애니오 망고 1+1

AUGUST 4th - 18th, 2022

SWEET MANGO
PERFECT FOR THE SUMMER!



하나 사면 하나 더!

**SEEDLESS
FROZEN MANGO
FROM THAILAND**

1 LB/PKG

\$4.9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신문사원의
동부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Anthony)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5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ad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밀알선교단 지소 설립 감사 예배

미주밀알선교단 총단에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금번 보스톤지역에 밀알선교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소 설립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목: 보스톤밀알선교단 지소 설립예배
일시: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보스톤장로교회
주소: 2 Main St, Hopkinton MA
설교: 이재철 목사(미주밀알선교단 총단장)
사회: 강원호 목사(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지소장 임명: 반봉현 목사
지역협력위원: 장의한 목사(뉴햄프셔장로교회),
장성철 목사(보스톤장로교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96) 주식 투자의 두 그룹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 투자에 관하여 오랫동안 한인 동포를 상대로 한 칼럼을 연재하고 강연하며 느낀 점이 있다. 주식 투자하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그룹과 주식에 투자하지만, 도박처럼 투자하는 그룹이다. 주식에 제대로 투자하는 중간 그룹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그룹은 고국에서부터 주식 투자로 주위에 패가망신했다는 소문과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큰 손실을 경험하면 주식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그룹은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물며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어렵고, 콘서트도 취소되었고, 도박장 가기도 힘들고, 여행을 갈 수 없기에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와 시간을 보내며 주식투자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주식 종목 선택은 대부분 주위 친지에게 문의하고 열심히 인터넷 등을 찾아서 결정한다. 종목 대부분은 요즘 화제가 되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선 어디에 투

자해도 투자 돈이 늘어나지만, 몇 종목의 특정한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했건 안 했건 지난 13년(2009-2021) 동안 주식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런 놀라운 수익률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S&P 500 Index)을 뜻한다. 만일 투자자가 어느 특정한 회사 주식에 투자했거나 어느 특정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면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는 비교할 수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개별적인 회사나 어느 특정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Betting)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가격이 상승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가격 상승만큼 중요한 것이 주식배당금이다. 재정 신문인 월스트리트(Dividend payouts hit record despite rocky

stretch in market, Hannah Miao, WSJ, July 12, 2022)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만 미국 500대 기업의 주식배당금이 \$140.6 billion이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도 \$123.4 billion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다. 작년(2021)에는 \$511.2 billion이 지급되었는데 이런 주식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500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한 투자자만이 받은 것이다.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이다.)

현재의 뜨거운(Hot) 몇 개의 주식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상황으로 변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195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9,000개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존재했지만 그중 약 80% 기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내가 은퇴할 때 투자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몇 개의 기업투자는 그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지마 투자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도 이와 비슷하다. 미래에 다가오는 새로운 혁신과 디지털 기술에 뒤떨어져서 안 된다고, 용감한 사람만이 부자 된다고, 장밋빛 희망(Fortune favors the brave,

Super Bowl 2022 Commercials)을 한층 부추긴다. 기술 혁신은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코인 투자로 누구나 대박이 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종류만 15,000개 이상이다. 금나다지(Gold Rush)를 깨기 위해 너도나도 서부로 갔지만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기 위한 도구를 판 사람과 술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식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주식 대박 종목을 꼽아주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많이 있다. 금융업계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열심히 부추긴다. 주식 정보도 넘쳐난다. 그러나 주위에 떠도는 주식정보와 군중 심리에 의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투자는 최고의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로 재미를 느끼고 흥분되어서도 안 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보통(평균)만 하는 것이다. 지난 90년 주식시장 연평균이 10%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5세 풍월주風月主 춘장공春長公(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62년 김춘장은 약 6년간 재임했던 풍월주의 자리를 진공眞公에게 물려주고 창부倉部의 관리로 임용되었다. 창부는 당시 신라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61년(진덕여왕 5년) 집사부執事部가 설치될 때 품주稟主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소속관원은 영슈, 경궐, 대사大舍, 사史 등이 있었다.391) 김춘장이 창부로 들어갔을 때의 관등과 직책은 알 수 없는데, 그는 곧 집사부로 옮겼다. 집사부는 신라의 국왕 직속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중앙관청 14부가 속했으며 국가의 정책 전반을 관장하였다. 집사부의 장관은 중시中侍이고 다음으로 전대대典大等, 대사大舍, 사지舍知392), 사史 등이 있었다. 김춘장은 대야찬(5등급)의 관등으로 678년(문무왕18년) 3월에 중시가 되었다. 화랑세기의 기록에서 '여러 번 승진하여 중시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 집사부에 들어갔을 때는 사史 또는 대사大舍의 관직으로 임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그가 집사부의 최고위직인 중시를 그만 둘 때까지 사지舍知의 직책은 없었다). 춘장은 678년 전임 중시 김천광을 이어 그 위치에 올

랐지만 병이 들어 이듬해인 679년 1월 천존天存에게로 이어졌다. 1년 남짓 중시에 임직했던 춘장의 생몰년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병으로 인하여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그 이후 그에 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

화랑세기의 내용을 인용한다. [풍월주로 6년간 있다가 진공에게 물려주고 창부倉部로 발탁되어 들어갔다. 곧 집사執事로 옮겼는데 그 일이 맞았으므로 여러 번 승진하여 중시中侍가 되었다. 공은 늘 겸손히 말하기를 "나와 같은 사람을 가히 일러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능도 없이 단지 부형과 상선上仙들의 음덕에 의지했을 뿐이다" 했다. 공적을 스스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 제24대 진흥왕에게는 왕후 사도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후궁이 있었다. 그중에서 월화궁주는 가야에서 왔다. 월화의 부모는 이뇌왕과 양화공주(신라인)이다. 진흥왕과 월화 사이에서 천주가 태어났다. 후일 천주가 지도와 결혼하였다. 지도는 진흥왕의 차남 금륜과 혼인하여 용수와 용춘을 낳았다. 지도는 금륜이 제 25대 진지왕으로 즉위하면서 왕후가 되었다가, 진지왕이 579년 퇴위당해서 곧 죽게되자

얼마 후 천주와 결혼하였다. 이어서 그들 사이에서 17세 풍월주 김염장과 천장낭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염장은 하회를 아내로 맞아 춘장을 낳았고, 천장은 후일 상대등에 오른 수품과 혼인하여 천봉낭주를 낳았다. 춘장은 천봉을 아내로 맞이하였다.393) 하지만 춘장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절손된 것으로 사료된다. 춘장은 그외에도 정인은희(20대 풍월주 김예원의 딸)와 첩 양시(22대 풍월주 김양도의 딸)를 두었지만 그들에게서도 후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춘장은 '진선공자眞仙公子'라고 불리며 신선처럼 산 16세 풍월주 보종공의 청결한 삶을 사모하여 덕을 세우는 표준으로 삼았기에 아마도 부인이나 첩들과의 관계를 멀리하였을 개연성 또한 크다.

391) 699년(효소왕 8년)에 4관등인 조사지租舍知를 두어 사史는 5관등이 되었다. 경덕왕 때 경은 시랑侍郎, 대사는 낭중郎中, 조사지는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모두 환원하였다.

392) 집사부의 제 4등 관직인 사지는 신문왕 5년에 설치되었고, 경덕왕 18년에 원외랑員外郎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지로 환원

하였다. 393) 당시 신라에서는 골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의 즉내혼을 하였다. 춘장과 천봉 부부를 통하여 그들의 선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춘장의 부모는 염장과 하희이다. 염장의 부모는 천주와 지도태후이다. 천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월화공주이다. 춘장의 어머니인 하희의 부모는 11세 풍월주 하종과 은륜공주이다. 하종의 부모는 세종과 미실이며, 은륜공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즉 진흥왕은 춘장의 증조부 겸 외증조부이다.

다음은 춘장의 부인 천봉의 부모는 수품과 천장낭주이다. 수품의 부모는 구륜과 반야공주이다. 구륜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반야공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미실이다. 천봉의 어머니 천장낭주의 부모는 천주와 지도태후이다. 천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월화공주이다. 즉 천봉낭주 역시 진흥왕의 증손녀이자 외증손녀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UCKOO

뜨거운 8월, 쿠쿠 렌탈로 팔팔한 여름나기

힘을내요 슈퍼팔팔월



제로백 끓인물 + 얼음정수기 | CP-SN102HW

NEW
끓인물+
얼음 정수기



NEW
3D / 4D
안마의자

4D 임페라토르 챔피언 안마의자
CMS-H10BR | CMS-H10BE

신제품
추천 플랜

제로백 끓인물 + 얼음정수기
CP-SN102HW

\$54.99/month

3D 듀크 스마트 안마의자
CMS-G10BK | CMS-G10BR

\$109/month

4D 임페라토르 챔피언 안마의자
CMS-H10BR | CMS-H10BE

\$189/month

기간 | 07.28.2022 ~ 08.29.2022 조건 | 기간내 주문 & 8월 내 설치

슈퍼팔팔월
스페셜

1

일시불 구매시

**25% 할인가
적용!**

2

3대 렌탈 또는 구매시

**쿠쿠 프리미엄
멀티쿠커 증정!**
(+ 쿠쿠 11" 티타늄 후라이팬)

3

2대 렌탈 또는 구매시

**HEPA 공기청정기
번들 증정!**
(+ 쿠쿠 11" 티타늄 후라이팬)

4

1대 렌탈 또는 구매시

**쿠쿠 11" 티타늄
후라이팬 증정!**

신제품
런칭스페셜

5

안마의자 고객대상

**\$400 상당 초강력
공기청정기 증정!**

6

안마의자 구매시

**최대
\$2,000할인!**

7

안마의자 렌탈시

**500불
다운페이 면제!**

8

신제품 고객이 추가 제품 구매시

50% 할인 적용!
(공기청정기, 비데, 클렌저)

Cuckoo Boston 370-A Boylston Street, Brookline, MA 02445 |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조기 소진시 동일 가격대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등의 추가 구매와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 제빙기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게임하듯 임무 수행하는 인간병기...넷플릭스 영화 '카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눈을 떠보니 귓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남자를 둘러싼 외국인 무장요원들은 정병호 박사라는 인물의 행방을 묻는다. 기억을 전부 잃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병호를 알리가 없다. 요원들은 남자와 정병호가 함께 찍은 동영상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일단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호텔방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도착한 곳은 공중목욕탕이다. 남자는 몸에 문신을 한 정체불명의 상대 100여 명을 낫 한 자루로 처치한다. 목소리는 남자의 이름이 카터라고 알려준다. '카터는 의문의 작전에 투입된 카터(주원 분)가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주어진 임무를 성공시키는 과정을 담은 액션영화다.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문제였다. 비정상적 신체 능력과 공격성을 갖게 되는 좀비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창궐로 미국과 북한이 초토화한 가운데 남북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정병호 박사가 핵심 인물이다. 그는 딸의 항체를 이용해

치료제를 만들어 신의주 연구소로 가던 중 실종된다. 정병호 박사의 딸을 찾아 연구소에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게 카터의 임무다.

카터의 입 안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다. 그는 귓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이동하며 CIA 요원을 제압하고 인간 치료제인 정병호 박사의 딸을 복송해야 한다. 이런 설정과 원테이크 촬영 덕분에 영화는 마치 온라인 임무수행게임을 보는 듯하다.

카터는 목욕탕 혈투 이후 시장 골목과 옷가게를 거쳐 승합차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만난다. 카터는 쉬지 않고 뛰거나 오토바이를 몰며 목소리의 지시를 하나씩 수행한다. 이 20여 분의 액션은 원테이크로 촬영됐다.

한국 최고의 액션 마스터로 평가받는 정병길 감독은 김옥빈을 킬러 숙희로 내세운 1인칭 액션 '악녀'(2017)에 이어 재차 독창적인 액션 스타일을 구축했다. 액션은 양적으로도 풍성하다. 목욕탕에서 팬티 바람에 낫을 무기로 시작한 카터의 액션은 오토바이·자동차·헬기·기차·스카이다이

빙으로 스케일을 넓힌다.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전문 스카이다이버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 헬기 역시 실감나는 액션을 위해 실물 크기로 직접 제작했다.

정 감독은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카터의 액션은 거친 수묵화"라며 "어릴 때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카터에 투영시켰다"고 말했다.

카터의 문신 역시 수묵화 느낌으로 디자인했다. 정 감독은 "뒤틀릴 못하고 한번에 그려야 하는 수묵화 같은 날것의 느낌을 카터의 몸에 새겨주고 싶었다"며 "제가 카터의 몸에 개인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 '각시탈'과 '7급 공무원' 등에서 액션 연기를 연마해온 주원은 대부분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 그는 "넉 달 동안 액션 트레이닝을 하고 매일 고강도 액션을 촬영했다"며 "두 시간 넘는 러닝타임 내내 액션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5일 넷플릭스 공개. 132분. 청소년 관람 불가.



8월 7일 - 8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쥐띠 새로운 변화를</p> <p>● 운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 금전: 정비구리 부담을 크게 줄여줄 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소띠 벌집을 건드린 격이</p> <p>● 운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금전 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범띠 흔들리지 말아야</p> <p>● 운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 금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릴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토끼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p> <p>● 운수: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상대가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용띠 멀리서 찾지 말고</p> <p>● 운수: 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으니 잘 활용 하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 애정: 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은 가까이에 연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뱀띠 세심한 배려가 필요</p> <p>● 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처리해야 합니다. ● 금전: 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애정: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3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말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p> <p>● 운수: 툼툼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촉만 믿고 거래하다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양띠 마음이 통하니</p> <p>● 운수: 흑사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큼니다. ●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9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원숭이띠 첫걸음을 시작해야</p> <p>● 운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올 돈이 자꾸 미뤄져서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훌러간 사람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지나간 추억에 젖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2일 길일, 8, 10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닭띠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p> <p>● 운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만족도가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길게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안하겠습니다. ● 금전: 발품을 팔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 애정: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1일 길일, 9, 13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개띠 뜻밖의 행운이 오니</p> <p>● 운수: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 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메이크업이나 머리 모양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1일 길일, 8, 10일 주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돼지띠 사실 여부를 떠나서</p> <p>● 운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 금전: 원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div>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4/15
로건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쉬어 및 기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美록축제 피날레 장식한 제이홉...무대앞 곳곳 한글응원 플래카드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 신원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미국 중부 최대도시 시카고 도심의 초대형 공원 그랜드파크 최북단에 초고층 빌딩숲을 배경으로 설치된 버드라이트 스테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중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개시한 제이홉이 자신의 솔로 데뷔 음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처럼 무대 위로 튀어 오르자 무대 앞은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다.

팬들은 '호석아', '방탄 스타일' 등 한글로 적힌 플래카드를 치켜들고 응원에 나섰다. '마이 홉'(My Hope), '홉월드'(Hope World), '제이홉'(J-Hope) 등 곳곳에 응원 문구가 나부꼈다.

제이홉은 이날 시카고에

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 2022의 피날레를 장식한 주인공이었다.

"제게 무척 의미있는 순간이자 모멘텀이 됐습니다. (솔로 데뷔 이후) 지금까지 두려움의 연속이었으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제이홉은 팬들에게 소감을 전하기 전 타이틀 곡 중 하나인 '모어'(More)로 무대를 연 뒤 솔로 앨범 수록곡들과 '치킨 누들 수프' 등 방탄소년단 활동 당시 발표한 솔로곡을 불렀다.

제이홉은 '방화'(Arson)를 부르던 도중 2019년 5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당시 시카고 프로풋볼구장 '솔저필드'에서 공연한 사실을 상기하며 "오랜만에 왔다. 시카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놀랍다"고 탄성을 내뿜었다.

같은 시간대에 그랜트파크 남단의 티모빌 스테이지에서는 네오 핑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기 밴드 '그린데이'(Green Day)가 공연했다.

K팝 스타 제이홉이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기 밴드 그린데이와 함께 2022 롤라팔루자 최종 무대를 책임진 것이다.

롤라팔루자 측에 따르면 제이홉은 미국 주요 음악 페스티벌의 주무대(메인 스테이지)에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오른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남겼다.

미국에서 K팝 '주가가'고 공행진하고 방탄소년단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제이홉의 롤라팔루자 참가는 큰 관

심을 모았다.

롤라팔루자 측은 "단일 아티스트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다"며 "그랜트파크 곳곳에 별도의 제이홉 공식 상품 판매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제이홉의 팬들은 이날 공연장 앞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을 만들었다.

보안을 위해 행사장에 배치된 시카고 경찰은 제이홉의 열성 팬들이 피약별 아래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혹시 탈수·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나눠주고 신속한 입장을 도왔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이례적으로 제이홉 옛 롤라팔루자(JHope@Lollapalooza), 호비팔루자(HobiPalooza)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사진과 글을 올리기도 했다.

'괴짜'로 돌아온 지코 '흥' 대표하는 아티스트 되겠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이번 음반에는 날 것 그대로의 지코가 담겨있습니다."

가수 지코가 2020년 7월 '랜덤박스'(RANDOM BOX) 이후 약 2년여 만에 돌아왔다.

그는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혼자 듣다 보니까 좀 더 예전 지코의 모습에 가까운 음악이 나왔다"고 했다.

지코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미니 4집 '그로운 애스키드'(Grown Ass Kid)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2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괴짜'로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그는 2년간의 공백기 동안 무

엇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코는 "내 안에 쌓여 있던 많은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운 제 모습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굉장히 개운한 상태이고 창작하기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의 플레이어리스트에 음원들이 추가되고, (음원들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작업했다"며 신보를 발매한 소감을 밝혔다.

'그로운 애스키드'에는 타이틀곡 '괴짜'(Freak)를 포함해 '서울 드리프트'(SEOUL



DRIFT), '트래시 토크'(Trash Talk), '오엠지 프리스타일'(OMZ freestyle), '녹터널 애니멀스'(Nocturnal animals) 등 5곡이 수록됐다.

지코는 타이틀곡 '괴짜'에 대

해서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의 거친 모습"이라고 말했다.

hug@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첫 손녀 Tessa의 할머니가 되어...

첫 손녀 Tessa(07/30/2022)를 만났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너무도 앙증스럽고 예쁜 손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막내아들이 만 서른이 되었다. 대학 1학년 때 만난 동갑내기 오랜 친구와 지난해 6월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올 8월 말 정도가 예정일이었는데, 7월 30일 새벽에 태어났다. 그날은 남편(할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 할아버지 생신날에 첫 손녀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같았다.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와 걱정과 염려가 되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당 의사의 말과 함께 며칠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퇴원했다. 사진으로 전해오는 첫 손녀의 모습이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아직도 막내아들은 내게 우리 집 귀염둥이 같은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터였다. 누나와 형보다 먼저 결혼하고 아기도 먼저 낳았다

. 이제는 어엿한 딸아이의 아빠가 된 것이다. 맘껏 축하를 해주었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행복하라고 말이다.

아기의 미국 이름은 Tessa J. Shin이고 한국 이름은 8월에 태어날 예정일이라 '여름'이라고 지어 '신 여름'이 되었다. 첫 손녀딸을 보면서, 32년 전 딸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손녀딸을 보시고 좋아하시던 때를 생각했다. 아,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셨겠다 싶어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우리 집 세 아이를 예뻐해 주셨고 곁에서 많이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내가 많이 편안했다. 이 아침 모두가 감사하다는 기도가 차오른다. 서로 손자 · 손녀 그리고 할머니 · 할아버지로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

엄마의 뱃속에서 한 달을 일찍 나와 가족들이 염려스러웠지만, 5파운드 정도의 몸무게로 있어 감사했다. 그 앙증스러운 얼굴에 눈과 코 그리고 입과 귀를 보면서 너무도 신기했다. 다섯 손가락과 다섯 발가락을 보면서 생전 처음 아기를 보는 것

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신비스러웠다. 볼도 만져보고 머리숱도 얼마나 많던지 그저 예쁘기만 했다. 아이를 안아보면서 혹여 놓치면 어쩌지 싶어 아이를 낱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첫 손녀딸을 그렇게 안아보았다.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인연이 되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었다.

할머니 · 할아버지는 자식이 아니고 손자 · 손녀라서 교육에 대한 책임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예쁘기만 하기에 칭찬만 해주고 단 것을 좋아하면 단 것도 먹이고 하고 싶다는 것을 부모보다는 너그러이 넉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예쁘기만 한 손녀에게 뭘 더 바랄까. 내 앞에서 재롱 부리고 할머니가 좋다고 한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벌써부터 '손녀바보'가 된 할머니가 되고 말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건강하고 맑고 밝게 하나님 자녀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한다.

지금까지는 아기를 장난감과 옷에 관심이 없었는데, 샴핑 물에 가면 아마도 눈길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저

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따라 '내 시어머님'이 많이 그립다. 우리 집 세 아이를 키우며 참으로 정성스럽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이셨다. 내게는 좋은 시어머님 아들에게는 자상한 엄마 그리고 손자 · 손녀에게는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할머니'였다. 아, 내가 할머니가 되어보니 더욱 그리운 '시어머님'이시다. 어머니,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많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큰아들이 한국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 할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일주일 다니러 가 있다. 아빠를 여의고 처음 할머니 · 할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라서 엄마는 큰아들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마음이 무겁다. 서로 슬픔이 가득 차 있을 이들의 만남이 생각만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던가. 아빠를 잃은 슬픔이 안타깝고, 아들을 여윈 시부모님들의 그 가슴이 멍멍해 오지만, 이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를 드리는 일뿐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재조산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십년도 훨씬 전이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다. 그의 글중 몇대목만 낱것으로 옮긴다. '이 시대의 사회심리를 집약하는 두 단어는 '향수' 와 '불안' 이다.

불안감不安感은 모르겠다. 그러나 향수라면 이은상선생의 가고파이다. 노래가사도 정녕 눈물겹다. 가고파 가사다.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져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이은상 시, 김동진 곡)

사회학자의 말이 계속된다. '예전에는 부자 소리를 들었을 재산목욕으로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안바이러스가 몸과 마음을 점령했다. ...흔들리는 현실을 어떻게 보수補修하고, 미래의 꿈을

어떻게 보수保守할 것인가' . (송호근, 중앙일보, 2011.07.05)

이 역시 수년전이다. 한국 전前 대통령 시대가 열렸을 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한자 성어는 '재조산하再造山河' 라 했다. '나라를 다시 만든다' 라는 뜻이다. 이 문구는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륙년이 지난 지금에선 어렵도 없는 막연한 꿈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

동안 국민의 불안감을 얼마나 덜어주었고, 얼마나 위로해줬으며,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 다시 만드는 건 아예 꿈이었던가?

색동옷 입고 웃고 웃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과연 그때가 돌아올 것인가. 이번 정권에선 과연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번엔 향수와 불안감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말이다. 아니 현실을 보수할 수 있고, 미래의 꿈을 보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만들건, 새로 짓건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재법산하在法山河가 되는 건 아닌지 그건 자못 궁금하다. 하도 법이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왔으니 말이다. 요샌 뭐든 다시 들여다본단다.

기름값은 오르고, 천정부지이다. 기름없는 세상에선 자동차가 달리지 못한다. 과연 눈물없는 세상이 울수 있을까? 나한테도 향수 병이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 (시편 38:8)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데 병원 가면 이상 없대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심장혈관·부정맥센터 순환기내과 원 호연 교수의 도움을 받아 흉통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주부 윤씨는 새벽에 심장이 조이는 듯한 심한 흉통이 나타났다가 두근거리는 증상이 몇 일째 반복돼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김 씨는 퇴근 후 헬스장 런닝머신에서 빠르게 걷기운동을 하던 중 가슴이 빠근해지고 심하게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가게 됐다. 병원에서 심전도검사부터 다양한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많은 사람이 한 번씩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경험하고 일부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해보지만,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유럽심장저널 등에 따르면 흉통의 원인 중 42%는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질환이 가장 많고, △허혈성 심혈관질환 31% △근골격계증후군 28% △심낭염 4% △폐렴과 늑막염 2% △대동맥류, 대동맥관 협착증, 대상포진이 각각 1%로 나타났으며, 실제 흉통으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 대다수는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신경계 이상이나 심리적인 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람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원호연 심장혈관·부정맥센터 순환기내과 교수는 "흉통은 가슴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 또는 불편감으로 그 원인은 심리적인 이유부터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소화기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심근염은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적인 원인,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돌연사를 볼 수 있는 협심증이나 중양 등 심각한 질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흉통의 대표적인 원인 중 △심혈관계 질환에

는 '허혈성 심혈관질환 '△심장 근육의 이상인' 심근증 '△심장판막증, 심장 박동의 이상인' 부정맥 '△심장막에 발생하는 심낭질환 △심부전증 △심장종양 등이 있다.

협심증은 동맥경화에 의해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필요한 혈액공급이 부족해 주로 운동 시 가슴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 정도 발생되었다가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지 않더라도 위험인자들로 인해 동맥경화반이 과열되어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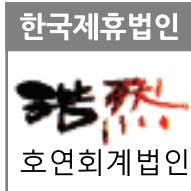
휴람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는 "협심증에 의한 가슴 통증은 주로 운동 시에 발생하고 가슴 좌측 또는 중앙부에서 빠근한 통증을 느끼며 턱이나 왼팔을 따라 방사통이 생기기도 한다"며 "초기에는 운동량이 많아야 가슴 통증이 발생하지만 점차 적은 운동 시에도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대개 움직이지 않고 안정하면 수분 내에 자연 소실되며, 혈관 확장제를 혀 밑에 넣거나 뿌려주면 빨리 회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교수는 "당뇨병 환자나 고령인 경우 신경이 둔하여져 초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중증

으로 진행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며, "심근경색에 의한 가슴 통증은 앉아 있거나 자다가도 갑자기 발생하며 10분 이상 지속되고 극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응급실로 오게 되지만 고령의 환자 중에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다가 결국 심부전에 빠져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 만일 잠이라도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슴 아픈데 병원 가면 이상 없대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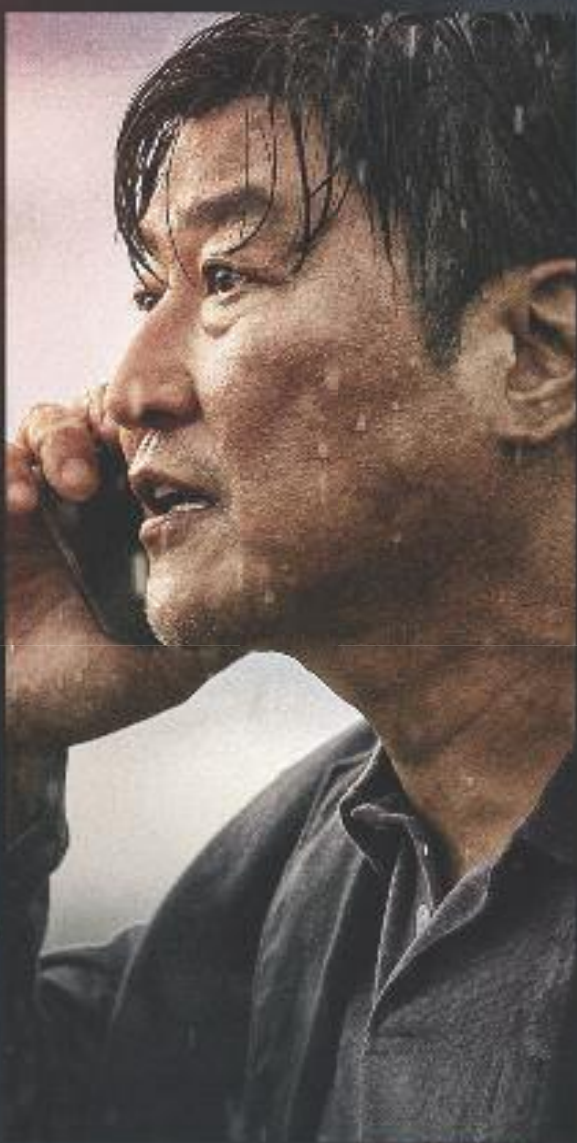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FESTIVAL DE CANNES
OUT OF COMPETITION
OFFICIAL SELECTION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EMERGENCY DECLARATION

비상선언

한재림 감독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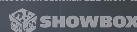
AUGUST 12

IN THEATERS NORTH AMERICA

SHOWBOX PRESENTS A MAGNUM PRODUCTION IN ASSOCIATION WITH C-JES ENTERTAINMENT, CINEZOO(IGO, LTD) & HAN JAE-RIM FILM "EMERGENCY DECLARATION"

SONG KANG-HO, LEE BYUNG-HUN, JEON DO-YEON, KIM NAM-GIL, YIM SI-WAN, KIM SO-JIN, PARK HAE-JOON

VISUAL EFFECTS BY KANG JONG-UK, HONG JEONG-HO (DEXTER STUDIOS) SPECIAL EFFECTS BY JUNG DO-AHN, RYU YEONG-JAE (DEMOLITION) MAKE-UP BY KIM SEO-YOUNG SPECIAL MAKE-UP BY HWANG HYU-KYUN, KWAK TAE-YONG (CELL) SOUND BY KIM SUK-WON (BLUECAP) RECORDING BY CHO MIN-HO LIGHTING BY LEE SUNG-HWAN MUSIC BY LEE BYEONG-WOO, CHONG JEE-HOON COSTUME DESIGNER CHAE KYUNG-HWA EDITORS HAN JAE-RIM, KIM WOO-HYUN, LEE KANG-IL PRODUCTION DESIGNER LEE MOK-WON DIRECTORS OF PHOTOGRAPHY LEE MO-GAE, PARK JONG-CHUL EXECUTIVE PRODUCER KIM DO-SOO PRODUCED BY HAN JAE-RIM WITH BACK CHANG-JU, EUM ZOO-YOUNG ASSOCIATE PRODUCER KIM DAE-SEUNG WRITTEN AND DIRECTED BY HAN JAE-RIM



COPYRIGHT © 2022 SHOWBOX AND MAGNUMS ALL RIGHTS RESERVED.



2022 년

한동포 한마당



광복 77주년

매사추세츠 한인회에서는 지난해 2021년 한동포 한마당 광복절 축제에 이어서 2022년 광복 77주년을 맞아 8월 13일(토) 한동포 한마당 여름 대축제를 준비합니다. 매사추세츠 한인동포와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 합니다.

기업, 단체, 개인 비즈니스

광고 후원 안내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을 모아 행사를 진행합니다. 풍족한 행사를 위하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위한 피켓, 또는 부스 광고를 신청받고 설치, 준비하여 드립니다. 광고 신청 접수 : masskorean2021@gmail.com 서영애 회장 978-807-1622 정대운 사승 978-461-2424

기업, 단체 후원 감사드립니다.

- 주) 보스턴 증영사관
- Family Dental / 김동원
- H-Mart / Burlington
- NEKUMW
- Law Office of Kim / 김성군
- Nam's School / 남진병
- 국제선교회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 여선교회
- 서울설령탕
- 참좋은이사 / 정대운
- 한미노인회
- 한국가든
- 7 Good's

개인 후원

감사드립니다.

- | | |
|------------|-----|
| Andrew Lee | 구영희 |
| 김종철 | 서동황 |
| 서태환 | 오광수 |
| 윤영권 | 이길신 |



매사추세츠 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행사협찬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한인회

광복 77주년

광복절 행사 함께하는 안여름대축제 !

한동포한마당



안여름 대축제

렉싱턴 에스팅스파크 잔디공원

Hastings Park, Lexington.

10 Lincoln St, Lexington, MA 02421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 4시

식사는 맛있는 불고기 도시락 이 준비됩니다.

COVID-19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 합니다.

제 2회 매사추세츠한인회 노래사랑

대상 : 김치냉장고

1 등 : TV 65"

2 등 : 쿠키압력밥솥

인기상, 참가상

/ KASOM Singing Competitions

남녀노소 개인, 단체 구분없이
예선 통과한 12개팀 참석, 예선신청

어린이 그림 그리기 / Children' Drawing Contest

연령별 : 6 이하, 7~9살, 10~12살 어린이 참가

1, 2, 3등 아마존 기프트카드, 참가상

스케치북과 색상도구가 준비됩니다.

이메일, 전화,
사전접수 선착순 45

민속놀이 : 다양한 상품

영화 오징어게임 추억의 놀이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연장 Raffle 게임

티켓 판매합니다.

1등 : 고국방문 항공권 \$ 1,500

2등 : TV 65"

다양하고 특별한 상품 준비

노래사랑, 그림그리기 사전접수처

masskorean2021@gmail.com

978-807-1622

978-461-2424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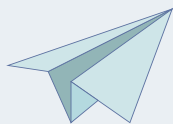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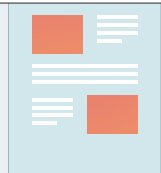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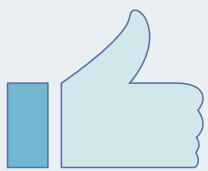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